2013년 10월 25일 13-20(통권 95호)

연금시장리뷰

경제현안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산업 이슈: 산업자동화 시스템 시장 현황
경제 이슈: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퇴직연금
퇴직연금 이슈: 중국 인구고령화와 산아제한 정책 완화

세심록
'사회성'을 기르는 데 '문학성'이 필요한 이유

Book Review
판도라의 상자, 중국

본 자료는 기관 및 개인투자자를 위해 작성한 현대증권과 현대경제연구원이 공동발행하는 보고서로 퇴직연금 관련 이슈 및 경제현안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우측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증권 http://www.youfirst.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 동향: 국내외 경제 및 금융시장

○ 실물 동향: 2013년 3/4분기 경제성장률 7분기 만에 최대 기록

-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2013년 3/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속보치'에 따르면 3/4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3.3%, 전기대비 1.1% 상승하며 7분기 만에 최대를 기록**
  - **소비·투자·수출:** 민간소비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한 비내구재와 서비스 등이 1.1% 늘어났고, 설비투자 1.2%, 건설투자도 2.7% 증가하여 2분기보다 개선됨. 반면, 수출은 0.9% 감소
  - **경제활동별:** 제조업이 1.6% 증가한 것을 비롯해 건설업 1.2%, 전기·가스·수도업 1.0%, 농림어업 2.0%, 서비스업 0.7% 등이 모두 증가세를 나타냄

- **2013년 국내 경제성장률은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이 상반기 1.9%보다 하반기 3.6%(한국은행 전망치)에 더 커지면서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금융 동향: 국내 금융시장 트리플 강세

- **고용지표 개선 등 국내 경기 회복 기조로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확대되면서 국내 금융시장은 트리플 강세를 보임**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0월 8일 2.85%에서 10월 24일 현재 2.80%로 0.05%p 하락
  - 원/달러 환율은 견고한 국내 경제 펀더멘탈과 경상수지 흑자 지속 등으로 10월 8일 1,074.0원에서 10월 24일 현재 1,062.0원으로 12원 하락
  -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투자자의 매수가 확대되면서 10월 8일 2,002.8에서 10월 24일 2,046.7로 43.9p 큰 폭으로 상승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			
		연간	1/4	2/4	3/4	4/4	1/4	2/4	10/8	10/24
실물지표	GDP성장률(%)	3.4	2.8	2.4	1.5	1.5	1.5p	2.3	3.3	-
	산업생산(%)	7.2	4.2	1.5	0.3	1.2	-1.8	-0.9	0.9	3.4
	소비자물가(%)	4.2	3.0	2.4	2.4	1.7	1.4	1.1	1.3	0.8
	실업률(%)	3.4	3.8	3.3	3.0	2.8	3.6	3.1	3.0	2.7
	경상수지(억달러)	54.9	25.6	111.4	145.6	149.4	100.2	198.0	57.4	-
금융지표	국고채3년물(%)	3.68	3.45	3.39	2.88	2.81	2.68	2.67	2.85	2.80
	원/달러(원)	1,083.2	1,131.3	1,152.1	1,132.9	1,090.3	1,084.8	1,122.8	1,074.0	1,062.0
	코스피지수(P)	2,100.7	2014.0	1,854.0	1,900.5	1,997.1	2,004.9	1,863.3	2,002.8	2,046.7

주: 1) 실물지표는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금융지표 중 국고채 3년물 금리와 원/달러 환율은 기간 중 평균값이며 코스피 지수는 기간말 기준임.
2) 실물지표 중 10월 8일은 8월, 10월 24일은 9월 수치임. 단, 10월 8일 GDP성장률은 3/4분기 속보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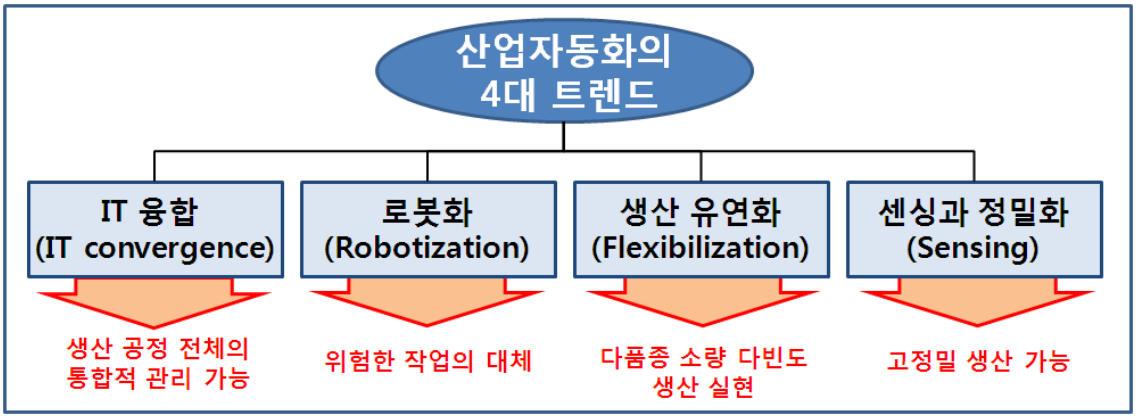
□ 산업 이슈: 산업자동화 시스템 시장 현황

○ 산업자동화 시스템 개요

- (정의) 산업자동화 시스템은 제품의 계획・ 설계・ 생산준비에서부터 생산의 제어・ 관리・ 운용 등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을 의미
  - 산업용 로봇, 머신비젼, 산업용 PC, PLC, 공장자동화(FA)용 센서 등을 포함
- (발전 배경) 생산라인 비용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발전
  - 제품의 자동설계, 생산공정의 자동제어, 생산설비의 관리, 장애의 발견과 복구 등 생산 전반에 걸쳐 인력에 의존하던 일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발전
  - 산업자동화 기술이 IT 기술과 융복합화 되면서 제어기, 센서, 구동기 등을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통합하여 관리

○ 시장 규모 및 최근 트렌드

- (시장 규모) 세계 및 국내 시장은 산업용 로봇의 보급 확산으로 지속적으로 성장 전망
  - 세계 시장은 연평균 7.3% 성장하여 2015 년에는 약 2,352 억 달러에 이를 전망
  - 국내 시장은 연평균 10.2% 성장하여 2015 년에는 약 5.3 조원에 이를 전망
- (최근 트렌드) 산업자동화기기들이 IT 기술과 융합되고, 로봇의 활용이 확대되며, 유연생산 시스템을 통한 다품종 소량생산 체제 및 고정밀 생산으로 진화



○ **주요 산업자동화 시스템의 시장 동향**

- (머신비젼) 세계 시장 규모는 2013년 현재 49억달러 규모로, 향후에도 3%이상의 성장률로 성장할 전망

  • 머신비젼 제조 기업들은 COGNEX, Vieworks, CYLOD 등으로, 각사는 차별화된 기술로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하고 있음

- (산업용 로봇) 세계 산업용 로봇은 2012년 약 18만대가 생산되고, 중국을 비롯한 주요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음

  • 한국의 산업용 로봇 생산은 꾸준히 증가해 왔으나, 세계 시장규모의 성장세에 못미쳐 시장점유율이 하락하는 추세

- (산업용 PC) 생산 자동화를 위해 필수요소가 되어 오면서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 산업용 PC가 적용되어 왔고, 2015년 세계시장규모가 970억 달러에 달할 전망

  • 국내 산업자동화 분야의 산업용 PC 의 시장규모는 2013 년 약 1,078 억원 수준

- (PLC) 중국 등 신흥국 제조업이 확대되면서 세계 PLC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최근에는 서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PLC 제조사들이 적극적으로 진출

  • 국내외 기업들의 공장이 중국 현지에 진출함에 따라 중국이 최대 시장으로 부상하고, 전 세계 PLC 제조사들이 중국 시장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예정

- (센서) 생산자동화 산업과 함께 시장이 확대되고, 세계적으로 기술의 고성능화도 진전되고 있으나, 국내 지능형 센서의 경우 개발단계가 아직 시제품 수준

  • 선진업체와의 기술격차 및 가격경쟁력의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상용화된 MEMS 센서를 대부분 해외에서 수입하여 센서모듈을 제작하고 있는 상황

□ 경제 이슈: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현황과 시사점[1]

□ 개 요

○ 자본재란 생산 제품을 구성하지 않으면서 재화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한 투자에 이용되는 생산수단을 의미한다. 자본재는 그 생산 장소에 따라 국산자본재와 수입자본재로 구분되는데, 최근 자본재의 수입의존도가 높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자본재수입의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설비투자 자본재'에 대해서 수입의존도(수입재수요/국내수요) 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현황

○ (전체 설비투자 자본재) 장기적으로 보면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는 1970년을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1960년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는 16.1%에 불과하였으나 경제개발이 시작되면서 1970년 75%까지 급상승하였다. 이후 자본재의 국산화가 진행되면서 수입의존도가 빠르게 하락하여 최근 40% 내외에서 횡보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05년 이후의 기간을 보면 수입의존도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37% 내외에서 2008년 이후 40%대로 급상승하는 모습이다. 2011년 현재 설비투자 자본재의 총국내수요는 116.3조원이며 이중 64.2조원이 국산재, 52.1조원이 수입재로 충당되어 수입의존도는 44.8%를 기록하고 있다.

○ (4대 부문별)설비투자 자본재의 하위 4대 부문(일반기계, 전기전자기계, 정밀기계, 수송기계)별 수입의존도 현황을 보면, 2011년 현재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부문은 정밀기계이다. 2011년 기준 정밀기계의 수입의존도는 68.2%이며, 다음으로 일반기계(49.8%), 전기전자기계(46.1%), 수송기계(29.3%)의 순이다. 2005년 이후 추세적으로 보면 수송기계 부문의 수입의존도가 네 부문중 가장 빠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2005~2011년의 수입의존도 변화를 보면

[1] 현대경제연구원,『경제주평』 13-43호, 2013. 10. 11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을 요약 정리.

수송기계가 분석 대상 기간중 15.1%p로 가장 빠르게 상승하였으며 전기·전자기계도 14.9%p의 상승폭을 보였다. 일반기계의 수입의존도는 7.0%p상승하였으나 정밀기계는 오히려 8.5%p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 (수입대상국별)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대상국별 수입의존도 현황을 보면 예상을 넘어 일본산이나 독일산 설비투자 자본재보다 중국산 제품 비중이 월등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2012년 현재 무역통계에서 포착되는 우리나라의 최대 설비투자 자본재의 수입국은 중국이며 그 비중은 25.1%이다. 특히,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일본이 우리나라의 최대 설비투자 자본재 수입국이었으나 2011년 이후 중국이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다음으로 일본 (22.5% 비중), 미국(13.5% 비중), 독일(11.1% 비중)의 순서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12년 현재 수입대상국별 설비투자 자본재 부문별 비중을 보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기·전자 부문이 가장 많고 미국, 일본은 일반기계의 수입비중이 높으며 독일로부터는 수송기계의 수입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 설비투자 자본재의 높은 수입의존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첫째, 설비투자 자본재 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기술 국가로 도약해야 한다. 둘째, 기업 규모 대형화, 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산업 발전을 위한 생태계 조성해야 한다. 셋째, 산업의 성장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및 해외 시장수요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산업의 무게중심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첨단 기계산업의 발굴 및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

주 원 수석연구위원 (juwon@hri.co.kr, 02-2072-6235)

□ 이슈: 중국 인구고령화와 산아제한 정책 완화

□ 요약

중국 산아제한 정책은 1950 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1979 년에 '한 자녀 정책'으로 명확하게 확립되었다. 산아제한 시행의 출산 허용 자녀 수를 몇 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와 결정도 초기 3 명에서 점차 축소되어 1979 년에 1 명으로 굳어졌다. 다만 부부가 모두 독자인 경우, 농업에 종사하고 첫째가 딸인 경우 등에 한해 두 자녀를 갖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중국 총인구는 1949 년 건국 이후 마오쩌둥의 국가 재건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에 힘입어 1975 년까지 연평균 2.1%의 속도로 증가하여 베이비붐을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1979 년부터 인구억제를 위해 1 가구 1 자녀의 산아제한을 실시하여 이후 출생률 감소와 고령인구 증가라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아울러 노동참여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 및 노년부양비 증가화 사회보장제도 미비로 자녀들의 부모부양 부담이 증가하여 자녀 세대의 저축과 소비감소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현재 중국 내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산아제한 완화에 대한 요구가 고조되고 있다. 가장 유력한 완화 방안으로는 이르면 금년 말부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독자인 경우 두 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2015 년부터는 모든 국민이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독자인 경우 두 명의 자녀를 허용하는 범위에서 산아제한이 완화될 경우, 중국 대부분의 농촌 지역은 이미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인 경우와 첫째가 딸인 경우에 한해 두 자녀까지 허용하고 있어 농촌 지역에서의 정책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베이징과 상하이 등 중국 대도시의 총출산율은 홍콩, 마카오 등 기타 도시들보다 현저하게 낮기 때문에 중국 도시 지역에서의 정책 완화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단기적으로는 신생아 출생 증가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으나, 교육 투자로 인한 기대수익 상승, 유아사망률 하락 등으로 경제성장과 총출산율은 반비례 관계를 보이게 되므로 정책 변화의 인구 증가 추세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된다.

정책 완화가 있을 경우, 분유 및 장난감 등 유아 관련 용품의 소비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가구 구성원 증가에 따른 자동차, 주택 업그레이드 수요 확대도 예상된다. 중국의 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한국의 분유, 아동의류 등 유아용품 관련 기업들은 적극적인 중국 진출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미 관련 중국 시장에 진입한 한국 기업들은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성장 가능성 및 경쟁 격화에 대비하여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판매망 확대 및 제품 고급화 등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

□ **중국 산아제한 정책의 내용**

○ **1950 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1979 년에 '한 자녀 정책'으로 명확하게 확립**

- 중국 산아제한 정책의 기본 내용은 "늦게 결혼(晚婚), 늦게 출산(晚育), 한 자녀만 출산(小生), 건강한 영아 출산(優生)"임
- 산아제한 시행의 출산 허용 자녀 수를 몇 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관한 논의와 결정도 변화되어 왔음
  · 1950 년대 중반 시행초기 한 가구 당 세 자녀까지 허용하였다가 이후 두 자녀로 강화한 후, 1979 년에 '한 가구 당 한 자녀 출산'을 강제하는 조치가 상하이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후 한 자녀 원칙으로 굳어짐

○ **아울러 다음과 같은 예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두 자녀를 허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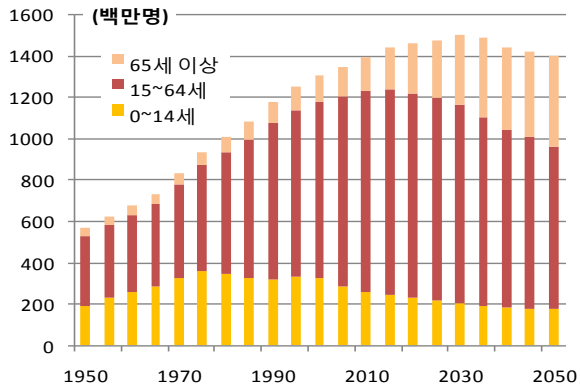
- ▲부부가 재혼인 경우 한쪽이 한 명의 자녀가 있고 한쪽은 자녀가 없는 경우, ▲재혼 전 양쪽이 모두 자녀가 있었으나 이혼으로 자녀가 모두 이전 배우자를 따라간 경우, ▲결혼 5 년 이상의 불임 부부가 입양을 한 후 아이를 임신하게 된 경우
- ▲부부가 모두 독자인 경우, ▲부부 중 한 사람이 광산, 해저 탐사 등 위험 직종에 5 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경우, ▲부부가 모두 농업에 종사하고 첫째가 딸인 경우

□ **산아제한 정책의 영향**

○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고령화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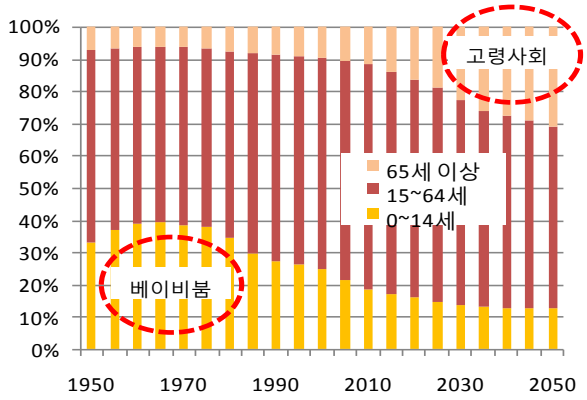
- 1949 년 건국 이후 마오쩌둥의 국가 재건을 위한 출산 장려 정책에 힘입어 1950 년 5 억 5,000 명이던 총인구는 1975 년에 9 억 3,000 명으로 연평균 2.1% 증가
- 1949 년 5 명당 1 명이던 영아사망률도 의료 및 복지 여건 개선으로 1975 년에는 20 명당 1 명으로 하락하여 1970 년대 중반에 베이비붐을 형성
- 이후 1979 년부터 인구 억제를 위한 "1 가구 1 자녀"의 산아제한을 실시함에 따라 출생률 감소 및 전체 인구에서 고령 인구의 비중이 점차 증가
- 2010 년 중국 전체 인구에서 65 세 이상 노령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1.8%에 머물고 있으나, 2030 년에는 20%를 초과하여 초고령 사회에 진입 예상

중국 총인구 규모 변화



자료: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연령별 인구 비중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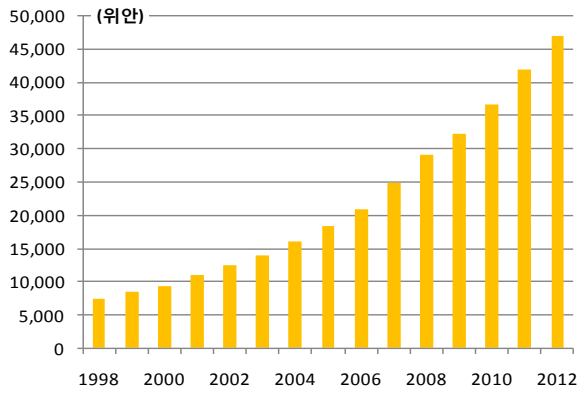


자료: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 노동비용 상승, 저축률 하락 및 소비 감소 가능성 등으로 장기 성장동력 약화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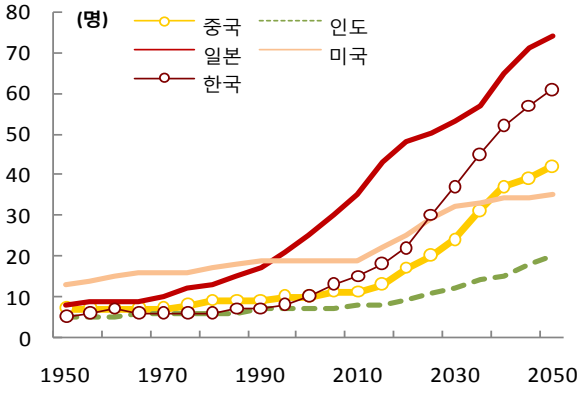
- 노동참여 인구 감소로 가파른 임금 상승 초래
  - · 2012 년 중국 연 평균임금은 4 만 6,769 위안으로 지난 3~4 년간 연평균 12% 증가하였으며, 이미 중국의 상하이 등 대도시의 노동비용은 인도 뉴델리, 베트남 하노이 등 인접 아시아 국가 대도시의 임금 수준을 큰 폭으로 상회
- 노년부양비 증가와 사회보장제도 미비로 인해 자녀들의 부모부양 부담이 증가하고 자녀 세대의 저축과 소비 감소가 불가피
  - · UN 의 추산에 따르면 중국의 노년부양비(old-age dependency ratio)[2] 는 현재 11 명 정도로 아직까지는 비교적 낮은 수준이나 향후 꾸준히 증가하여 2040 년에는 미국을 추월하고 2050 년에는 42 명으로 상승할 전망

중국 근로자 연간 평균 임금



자료: CEIC

국가별 노년부양비 비교



자료: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 15~64세 생산가능 인구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노령인구의 비율

○ 성비 불균형 심화 및 강제 낙태 등 사회 문제 발생

- 중국 인구의 여성인구 100 명당 남성인구 수는 1980 년 106 명에서 2000 년에는 107 명으로 상승한 후 2010 년에는 105 명으로 하락하여 전체 인구의 성별 불균형은 점차 감소
  - · 그러나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여자 신생아 100 명당 남자 신생아의 수는 1980 년 106 명에서 2000 년에는 117 명, 2010 년에는 118 명으로 급격히 상승하였고, 2030 년에는 약 2,300 만 명의 20~45 세 남성이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또한 한자녀 정책의 영향으로 일명 "샤오황띠(小皇帝)"라 부르는 독자 세대의 사회적응 능력 결핍 등의 결과 초래
- 아울러 정책추진 과정에서의 강제 낙태 및 처벌 등으로 인권 침해 등의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부작용 야기

□ 향후 정책 변화 전망 및 영향

○ 최근 한 자녀 정책 완화 요구가 고조되며 향후 점진적인 정책 완화 가능성 증대

- 작년 11 월, 후진타오 前총서기가 향후 안정적인 인구 증가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이후, 12 월에 국무원 산하 연구기관 中國發展研究基金會는 한 자녀 정책을 완화하여 2015 년까지 두 자녀를 허용하고 2020 년에는 산아제한을 폐지할 것을 건의
- 칭화대학 공공정책연구소, 베이징대학 인구연구소, 중국사회과학원 등의 과거 한 자녀 정책 입안에 참여했던 학자들도 앞다투어 동 정책의 완화를 주장
- 중국 정부는 이르면 금년 말부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독자인 경우 두 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2015 년부터는 모든 국민이 두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짐

○ 단기 내 농촌지역 보다는 도시지역에서 출생률 증가 예상

-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독자인 경우 두 명의 자녀를 허용하는 범위에서 산아제한이 완화될 경우, 중국 대부분의 농촌 지역은 이미 부부 중 한 명이 독자인 경우와 첫째가 딸인 경우에 한해 두 자녀까지 허용하고 있어 농촌 지역에서의 정책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

- 그러나 부부 중 한 명이라도 독자인 경우 두 자녀 출산이 허용된다면 중국 도시 지역에서의 정책 완화 효과는 더욱 크게 나타날 가능성

  · 현재 베이징과 상하이의 총출산율(Total Fertility Rate)[3] 은 각각 0.71 과 0.74 로 비슷한 문화권과 소득 수준인 화교권 국가(홍콩 1.1, 마카오 1.0, 싱가포르 1.3)보다 낮은 수준

<중국 지방정부 별 도시-농촌 가구 당 출산 허용 최대 자녀 수>

(단위: 명)

	도시			농촌		
전제 조건	부부 둘 다 독자	부부 중 한 명이 독자	부부 둘 다 독자	부부 중 한 명이 독자	첫째가 여아	첫째가 남아
안후이 등 4 개	2	1	2	2	2	1
베이징 등 12 개	2	1	2	1	2	1
충칭 등 3 개	2	1	2	1	1	1
하이난 등 7 개	2	1	2	2	2	2
허베이 등 2 개	2	1	2	1	2	2
랴오닝 1 개	2	1	2	2	2	1
상하이 등 2 개	2	1	2	2	1	1

자료: 해당 지방정부 홈페이지

○ 그러나 중국 인구 장기 증가 추세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 교육 투자로 인한 기대수익 상승, 유아사망률 하락, 만혼과 무자녀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등으로 경제성장과 총출산율은 반비례 관계를 보이게 되므로 정책 변화의 인구 증가 추세에 대한 장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란 평가

  · 한국의 경우 1962 년에 총출산율이 '6'을 상회하여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해 "가족계획"을 시행하여 1985 년에는 '1.7'까지 하락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2005 년에는 '1.08'까지 하락하여 오히려 인구감소 문제 심화

  · 이에 따라 2020 년까지 총출산율을 '1.6'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출산장려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 현재 총출산율은 '1.2' 수준까지 회복되는데 그치고 있음

[3] 출산가능 연령 여성 1인당 출산한 영아 수

□ **시사점**

○ **정책 완화가 있을 경우, 유아용품 및 자동차, 주택 등에 대한 소비수요 확대 예상**

- 분유 및 장난감 등 유아 관련 용품의 소비 수요 급증 전망
  · 분유, 이유식, 기저귀, 피부 보습제 및 장난감 등 중국 유아 관련 용품 시장은 매년 15~24%의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소득 증가 및 최근의 중국의 식품 안전 문제 대두 등으로 수입 제품에 대한 수요도 급증
- 또한 가구 구성원 증가에 따른 자동차, 주택 업그레이드 수요 확대 예상
  · 2012 년 한해 중국에서는 49 만대의 미니밴 등 다목적차량(MPVs)이 판매되었으나 대부분이 영업용 차량 용도로 판매되었으나, 향후 산아제한이 완화되어 가구 구성원이 증가한다면 개인들의 구매도 급증할 전망

○ **아울러 관련 한국 수출 기업 및 내수 기업들의 사업 기회도 확대될 전망**

-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의 분유, 아동의류 등 유아용품 관련 기업들은 적극적인 중국 진출을 모색할 필요
- 이미 관련 중국 시장에 진입한 한국 기업들은 정책 변화에 따른 시장 성장 가능성 및 경쟁 격화에 대비해 중국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판매망 확대 및 제품 고급화 등 중장기 전략 마련이 필요

KB 경영연구소 이정진 연구위원, 경제학박사, (02-2073-5744, jungjin.lee@kbfg.com)

□ 洗 心 錄

□ '사회성'을 기르는 데 '문학성'이 필요한 이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반사회적인 극소수를 제외하고 사회 속에서 태어나 생활하다 사회 속에서 사라져 가는 것을 사람들은 당연하게 여긴다. 물론 모든 구성원들이 사회 속에서 같은 정도로 행복하고 생활을 풍요롭게 영위하는 것은 아니다. 누구는 사회라는 테두리 안에서 남보다 더 행복하게 느끼거나 앞서기도 하고 누구는 불행하다고 느끼거나 뒤쳐지기도 한다. 여기에는 운도 작용하지만 당연히 개인적인 자질과 능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다른 사회구성원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은 그중 가장 중요한 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규칙이 혹은 상대방이 뜻한 바를 명시적으로 표출하기 전에 이를 가늠할 수 있다면 그 만큼 구성원들과의 상호관계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긴장상태를 낮출 수 있고 그 만큼 이를 원만하게 끌고 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학계에서는 이런 "다른 사람들의 심리상태를 이해하는 능력"을 벌써부터 "Theory of Mind(ToM)"으로 불러왔고 이를 향상시킬 방법에 대한 과학적인 논의를 축적하고 있다. 세계적인 과학저널인 사이언스(Science)지에 2013년 10월 3일에 개제된 데이비그 키드(David Comer Kidd)등의 논문(Reading Literary Fiction Improves Theory of Mind)은 이의 가장 최근 성과라고 할 수 있다. 키드 등은 논문에서 소설이 비소설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공감(empathy)을 형성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소설 중에서 통속소설보다는 고전적인 명작소설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밝혀냈다.

그들은 실험자들을 우선 소설을 읽게 하는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으로 나누었다. 그런 다음 소설을 읽게 한 그룹을 다시 문학성이 높은 명작소설을 읽게 한 그룹과 통속소설을 읽게 한 그룹으로 나누었다. 모든 그룹에 10에서 15페이지 정도 되는 글을 읽게 한 다음에 두 가지 테스트를 진행했다. 하나는 다른 성인들의 사진을 2초 동안 보여주고 그 사진 속의 인물이

행복한지, 화가 났는지, 두려워하는지 혹은 슬픈지를 판단하도록 했다. 다음으로 얼굴의 작은 부분만 보여주고 훨씬 복잡한 심리상태를 나타내는 "사려 깊은" 혹은 "회의적인"과 같은 네 가지 표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실제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정도를 통계적으로 분석했다. 먼저 그들은 소설을 읽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정확성에서 높았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 다음으로 문학성이 높은 명작소설을 읽은 그룹이 통속소설을 읽은 그룹보다 높은 빈도로 사진 속 인물의 심리상태를 맞춘 것을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연구자 중 한 사람인 카스타노(Castano)는 내용(content)보다는 과정(process)에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곧, 명작소설과 통속소설 모두 독자를 제3자적 관점에 노출시키거나 설득력 있는 공감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전자가 후자보다 독자들을 더 복잡하고 쉽게 설명되지 않는 등장인물들의 동기에 노출시켜, 즉 독자들에게 등장인물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요구해 현실세계에서 상대의 마음을 읽을 능력을 더 많이 북돋운다는 것이다.

스마트 폰의 보급으로 "보는 것(visual)"이 결코 부족할 틈이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눈을 통해 80% 이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인간에게 최상의 환경이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들과의 좋은 관계 구축은 정보습득 만으로는 부족하다. 상대방의 의도와 느낌에 대한 해석이 필수적이며 당연히 이는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선 능력을 요구한다. 많은 과학적인 연구들이 명작의 독서가 두뇌 개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독서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그냥 "보는 것"이 아닌 독서 그것도 문학성 있는 명작에 몰입해보는 것은 스스로를 위해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하겠다.

윗사람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하고,
바르지 않으면 명령해도 백성은 따르지 않는다.

- 孔子(BC 551-479) : 중국 철학자

☐ Book Review

- 제목: 판도라의 상자, 중국

- 중국은 개혁개방 노선 추진 이후 30년간의 압축 성장을 거뒀으나, 이 과정에서 축적된 모순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으며,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정치적 정당성 소멸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배타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정책 추진으로 보다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저자: 수잔 셔크(Susan Shirk)

- 캘리포니아대 샌디애고 분교(U.C. San Diego) 석좌 교수
- 클린턴 정부 때 국무부 東亞太 부차관보 역임
- ≪중국 경제개혁의 정치적 논리≫ 등 저술

○ 주요 내용

- 중국은 지난 30년간 압축 성장을 거뒀으나, 이 과정에서 누적된 정치·경제적 문제 해소뿐 아니라, 배타적인 대외정책이 지연될 경우 새로운 위기 초래 우려

- 1978년 등소평의 문호개방으로 경제성장 뿐 아니라 대외적 입지도 강화되었으나, 정치·경제적 문제도 동반 확대
- 1989년 발생한 천안문 사태 이후 농민의 반정부 시위 등 공산당 체제를 위협하는 사건들이 빈번해지면서 최고지도부의 고민도 깊어짐
- 더욱이 최근 신흥 상업매체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대중을 통제하는 비용이 상승하여 공산당이 가진 정보공급의 독점권도 약화
- 대외적으로는 배타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정책을 계속 진행하면서 주변국과의 마찰 등 새로운 위기를 초래하고 있음

- (중국의 경제기적) 중국은 지난 1978년 등소평의 문호개방을 통해 중앙계획경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면서 경제는 물론 대외적 위상도 크게 향상

- 195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중국은 1978년 등소평의 시장경제체제 전환으로 경제는 물론 대외적인 입지도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부상
- 다만, 인구노령화, 금융 불안, 급증하는 실업률, 빈부 격차, 부패 등 향후 지속가능한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 발행이 우려됨

- **(국내적 위협) 천안문 사태 이후, 대중을 유화하는 전략적 노선을 견지하고 있으나, 실업, 금융 불안, 환경 악화 등 새로운 위협요인이 상시 발생**
  - 동유럽, 소비에트 연방 붕괴 이후 발생한 천안문 사태는 대중의 사회적 동요 등 내부적 분열을 상시 감시해야 하는 정치적 트라우마(Trauma) 지속
  - 향후 중국 공산당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노동자들의 실업, 금융 불안, 환경 및 공공위생 부문 등 위협요인은 상시 발생 우려

- **(민족주의의 확성기) 신문, 잡지 등 대중매체뿐 아니라 인터넷을 민족주의 확산 수단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로 인한 정치적 위기 도래 우려**
  - 신문 등 언론매체를 엄격히 통제하고 있으나, 공산당이 가지고 있던 대중에 대한 정보공급의 독점권이 점진적으로 약화
  - 더욱이 대중매체를 미국, 일본 등 중국과의 경제 및 정치측면에서의 마찰국가를 견제하는 배타적 입지 강화로 이들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

- **(책임있는 대국) '화평굴기(和平崛起)' 등을 통해 주변국들과의 협조적인 관계 형성, 경제적 유대를 통한 우호적 외교관계 등 주변국 포용하는 대국적 역할 강화**
  - 2002년 후진타오-원자바오 체제가 출범하면서 '화평굴기', 즉 외국인들과 화평하고 중국인들은 굴기하는 정치적 슬로건 형성
  -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한국 등 주변국들과의 외교 관계를 회복하고 동남이 10개국과의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주변국 껴안기 추진
  - 한편, 북한 핵문제를 중재하는 6자회담의 키메이커로 부상, 국제적인 협력 조력자로 이미지 개선

-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로 불리기보다는 C2를 강조, 동등한 협력적 파트너 관계를 주창하나, 경쟁과 갈등을 반복하는 프레너미 관계에 가까움**
  - 미중은 무역마찰 등 공방이 계속되나, 미국은 중국의 가장 큰 시장을 제공하고 있으며, 중국은 미국국채 매입 등을 통해 경제 파트너 관계 유지
  - 이에따라 중국은 미국에 대해 조정(Coordination)과 협력(Cooperation) 등의 의미에서 공동체로 인식하나, 사실상 프레너미(Frenemy)에 가까움

HRI Leaders Forum

최고CEO와 으뜸 지성의 만남

HRI 리더스포럼은 CEO들을 위한 프리미엄급 최고경영자 포럼입니다.

[HRI리더스포럼 혜택]

- 경제·경영부터 인문사회에 걸친 다양한 주제강연
- CreativeTV(usociety.co.kr)VVIP멤버십 제공
- 경제·경영도서 베스트셀러 제공(年12권)
- 최신 경제산업 동향자료
- 리더십교육프로그램 참여기회 마련
- 경제핫이슈분석 다운로드 서비스 제공

[연회비]

■ **1명** : 연100만원 ■ **3명** : 연200만원 ■ **5명** : 연300만원

일정 매월 넷째주 목요일 저녁 7시

장소 플라자호텔 22층 다이아몬드홀

시간 19:00~21:00(2h)

HRI리더스포럼에 지혜를 나눠준 연사

김난도 서울대 교수(대한민국소비트렌드의 최근 흐름과 사사점),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21세기 기업생태계와 지식의 통섭), 유홍준 명지대 교수(명작의 조건과 장인정신), 금난새 지휘자(하모니리더십), 김정운 명지대 교수(마음을 움직이는 힘)

HRI리더스포럼 사무국

· Tel. 02-2072-6246, 6247 · Fax. 02-2072-6249 · E-mail. forum@hri.co.kr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